최대 규모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연다

전주시, 2026년 봄 개최 준비 박차… 행사장 면적 · 정원 개소 수 · 예산 대폭 확대

대한민국 정원산업 분야 최대 규모의 산업전이 오는 2026년 봄 전주에서 열린다.(사진은 2025년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

대한민국 정원산업 분야 최대 규모의 산업전이 오는 2026년 봄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기존 정원산업박람회보다 행사장 면적과 정원 개소 수, 예산을 모두 대폭 확대한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준비해 시민들을 위한 대규모 정원 축제이자 전국 최고의 정원산업 박람회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내년 박람회는 기존 행사장인 전주월드컵광장 일원과 더불어 덕진공원 일대 7만㎡가 새롭게 행사장으로 합류하면서, 도심 대표 공원 두 곳을 잇는 대형 정원축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넓어진 공간을 활용해 월드컵광장에는 산업전과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덕진공원에는 정원전시를 통해 관람 편의를 높여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정원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정원 조성 규모는 올해 5개소에서 내년에는 45개소로 크게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시가 주관하는 '코리아가든쇼' 작가정원 6개소와 서울시와의 협력을 상징하는 우호정원 1개소가 새롭게 마련되고, 시민이 참여해 만드는 시민정원 38개소가 더해져 전문성과 참여성을 모두 갖춘 정원 네트워크가 도시 전역에 펼쳐진다.

시는 이번 박람회 준비를 위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시비 10억 원을 더해 총 20억 원 규모의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탄탄한 예산을 바탕으로 △정원산업 전시 △어린이부터 노인 세대까지 전 연령 참여 프로그램 △시민가드닝 교육 등 콘텐츠를 한층 강화해 이름뿐 아니라 실질적인 '대한민국 대표 정원산업박람회'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시는 덕진공원과 월드컵광장 일대를 정원산업과 관광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육성하고, 시민정원을 계기로 생활권 곳곳에 정원문화를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전주만의 정원산업 모델과 시민참여 경험을 축적해 향후 국내외 정원박람회와의 교류 및 지속 가능한 정원도시 정책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는 정원 개소수와 예산까지 확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박람회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수준 있는 정원작가들이 조성한 코리아가든쇼와 상호 정원문화 교류를 위한 서울 우호정원, 시민들의 일상 힐링공간이 될 시민정원 등 다양한 정원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정원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빈용기 재사용 실천 '대상'

전주시, 우수사례 평가서 지자체 부문 선정

전주시가 빈용기 재사용을 통한 자원순환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온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됐다.

시는 올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주관한 '2025년도 제3회 빈용기 재사용 실천 우수사례 평가'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으며, 시는 대상 수상과 함께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시는 △빈용기 회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회수 인프라 확충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적 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둬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조례를 통한 재정적 제도 마련부터 현장 운영까지 다층적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빈용기 재사용의 모범 모델을 구축해 온 노력을 통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실천 성과를 기록한 도시로 인정을 받았다. /권희성 기자

폐기물 새활용 통한 순환경제사회 도시 선도

전주시 새활용센터 다시봄,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전주시 새활용센터 다시봄이 올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주를 순환경제사회 선도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새활용센터 다시봄은 버려지는 폐기물의 새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고, 순환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새활용 산업 도심거점 공간 운영과 새활용 입주기업 산업 지원 및 육성 등에 집중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사업 내용은 △새활용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새활용 테마 미술작품 전시 △해설과 함께하는 새활용센터 탐방 △입주기업 산업 지원 등이다.

먼저 새활용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그간 전문강사로 육성한 16명의 강사단을 활용해 센터 방문객에 대한 이론·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도 제공했다.

특히 다시봄은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 등 5자간 자원순환교육 시행 협약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회의 현장학습을 진행함으로써 자원순환과 새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가정 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또한 센터는 새활용을 테마로 한 연간 8회(상설 4, 기획 4)의 미술작품 전시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지난달 24일에 개막한 '귀결된 모퉁이' 기획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전시를 통해 내년 2월 20일까지 업사이클링 가구와 탄소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새활용센터는 입주기업의 새활용 산업 및 판로 지원에도 힘써왔다. 구체적으로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의 공식 굿즈로 입주기업 ㈜잇잇과 육샘작업실의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을 지원했으며, 외부 박람회 홍보부스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이 추후 독립해 운영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서비스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센터에서 운영 중인 새활용 스토어에서는 입주기업의 다양한 새활용 제품을 홍보·판매하고 있으며, 기성품뿐만 아니라 맞춤 제작 의뢰로 연계하는 등 기업의 판로 개척을 이끌며 새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지역 사회적경제조직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전주시와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 결과공유회 개최

전주지역 사회적경제조직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전주시와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전주시는 11일 왕의 지밀(완산구 춘향로5218-7)에서 '2025년 전주시 사회적경제 결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에는 전주시의 사회적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in JEONJU'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념하고 2025년 사회적경제 추진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람회 추진위원회 위원과 사회적경제 기업·조직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결과공유회는 박람회 추진위원회의 추진 결과 보고로 막을 열었다.

추진위는 △약 8000명의 방문객 유치 △6400만 원 이상의 부스 운영 매출 △4600만 원 이상의 지역 상권 매출 등의 올해 박람회의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하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 혁신적인 박람회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박람회의 부대 행사 중 하나였던 상생오락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에 대한 '기부금 전달식' △박람회에 참여했던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IR 발표' △박람회 성공을 위해 헌신한 추진위원회의 '해단식' △공공기관 지원사업 안내(특허·출원 등) △2026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 신규사업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이날 모든 참석자들은 '사회연대경제로, 세상을 E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100인의 다짐 퍼포먼스'로 전주시와 대한민국의 사회적경제 성장을 함께 염원했다.

시는 올해 박람회와 이번 결과공유회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 제3회 F&B 인사이더스 개최

전주시와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은 11일 서울 오렌지플래닛 강남센터에서 '제3회 F&B INSIDERS(인사이더스)'를 개최했다.

'F&B 인사이더스'는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의 지역 특화 지원사업으로, 제품력과 원물 기반 경쟁력은 높지만 데이터·브랜딩·시장 연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시장과 고객 중심의 브랜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회차 'K-Food 트렌드'와 2회차 'K-Food 브랜딩'을 거치며 지역 F&B 창업기업의 성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3회차 프로그램은 유망 F&B 스타트업의 실전 경험을 공유하는 '인사이더스 토크'와 전주·강남센터 간 협업을 촉진하는 교류형 프로그램인 '콜라보 세션' 등으로 진행됐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주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260억 원(16만 1107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과 지난 6월 이전에 등록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경차·화물차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12월 2일 이후 신규 등록이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차량은 내년 1월에 수시분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납부 전용 가상계좌(전북·농협·국민은행)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금융기관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